

화해·평화의 선율 금강산의 봄 피우다

윤이상음악회 '용의 귀환' 금강산 문화회관서 열려

'상처 입은 용'이라 불리었던 불자 윤이상 선생이 평소 염원했던 휴전선 민족합동음악축전 기획을 계승한 첫 번째 자리라 마련됐다.

4월 29일 금강산 문화회관에서 남과 북 연주자들이 한 자리에 모여 '윤이상'을 연주하고 '윤이상'을 노래했다. 민족의 화해와 평화를 기원해왔던 윤이상 선생의 소원이 작게나마 이루어진 자리였다. 그래서 음악회의 소재명은 '용의 귀환'. 상처 입은 용이 두 쪽으로 갈라진 조국이나마 다시 돌아와 심금을 울리는 음악으로 귀환한 것이다.

음악회 1부는 음악평론가 정일범씨의 사회로 남측 연주자들의 음악이 관객을 사로잡았다.

TMF양상들이 연주한 파렐벨의 '케논', 국립국악원 창작악단이 선보인 윤이상 가곡 '편지' '추천' '남도아리랑' 등이 울려 퍼졌다.

2부는 북측 소개자 최성화씨의 진행으로 평양윤이



이수자 여사는 신계사 기와불사에 동참했다.

상관현악단이 윤이상 가곡 '고풍의상' '달무리' '협주적 단편' 등을 선보였다. 전체 60여명 단원 가운데 20여명이 이번 음악회에 참여했다. 우리나라에서 주최하는 공식 자리에 처음으로 나와 그동안 갖고 묶은 세계무대에서 인정받았던 실력을 아낌없이 드러냈다.

남성민요복창 '금강산 타령' '토장의 노래' 등은 흥겨운 가락에 관객들이 모두 박수를 치며 즐거워했다. 북측 남성가수의 신나는 노랫가락에 '양코트' 요청까지 쇄도해 군발타령까지 덩으로 들려주며 무대를 내려갔다.

2부의 하이라이트는 윤이상 선생의 난해한 현대음악을 맛볼 수 있는 소관현악 '협주적 단편' 이었다.

소관현악 '협주적 단편'은 끊어질 듯 끊어질 듯 이어지는 선율이 감미롭다기보다 섬뜩한 전율을 선사했다. 고뇌하는 인간의 내면적 혼란과 격동을 불러일으키는 듯한 강한 음색, 자지러지는 현악과 관악의 조



금강산 문화회관에서 남과 북의 연주자들이 만나 '윤이상'을 연주했다. 사진은 국립국악원의 연주 모습.

화로운 선율은 뇌리에 깊게 박히는 무언가를 남겼다. 곡의 중반부에 들어서면 목탁소리처럼 리듬감 있게 두들겨치는 타악기 소리를 신중함이 현의 뒝뒝으로 분위기가 반전된다. 그리고 다시 끊어질 듯 이어지는 음들은 이상 시인의 시를 떠올리게 하는 난해함을 품는다.

'다시 만남시다'를 노래하며 끝을 맺은 윤이상음악회는 관객들 모두에게 훈훈한 감동과 여운을 남겼다.

장용철 윤이상평화재단 사무처장은 "이번 금강산 음악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계기로 개성, 평양 등에서도 음악회를 열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밝혀 남북 연주자들이 한 자리에 모여 '윤이상'을 한 마음으로 연주할 그 날은 계속 이어질 것이라는 기대를 남겼다.

이에 앞서 4월 28일 금강산호텔서 남측 기자단과

최초의 기자간담회를 가진 미망인 이수자 여사는 "정부는 윤이상 선생을 간첩두목으로 몰았던 동백림 사건에 대해 사과하고 명예회복을 시켜야 한다"며 "윤선생의 명예가 회복되면 제일 먼저 통영에 달려와 선생이 꿈에도 잊지 않았던 통영 바다에 가서 한이라도 풀어드리고 싶다"고 가슴에 응어리졌던 피맺힌 한을 토해냈다.

또한 "인생의 슬픔과 불행을 겪으면서 그때서야 부

처님의 참 가르침을 마음속으로 이해하게 됐기에 독일에서 유일한 불자로 살았다"고 고백했다.

이수자 여사가 바라는 바는 오직 하나 윤이상 선생의 명예회복뿐이다. 그 간절함을 담아 신계사 기와불사에도 동참했다. 공식행사에 이수자 여사와 함께 참가한 딸 윤정씨도 어머니의 건강을 빌며 신계사에 기와를 얹었다.

금강산/글·사진=강지연 기자

북측 연주자들 남측 주최 공식 자리에 첫 선 현대음악으로 시작 '다시 만남시다'로 회향 이수자 여사 기와불사 동참, 명예 회복 기원



“사상 등 소프트웨어까지 복원”



“황룡사의 복원에는 당시 건축물과 장식, 내부 장엄(莊嚴), 사찰 조경(造景)과 방리(方里) 구조 등 하드웨어뿐만 아니라 불교 의례와 민속 등 소프트웨어 복원까지 이루어져야 한다”

문화재청 국립문화재연구소(소장 김봉건)가 4월 28~29일 이틀간 경주 보문단지 내 월분호텔에서 개최한 '황룡사복원 국제학술대회'에서 배병선 국립문화재연구소 황룡사복원사업단장은 '황룡사 복원 계획의 방향'이라는 논문을 통해 '황룡사는 당시 국가 이념인 불국토 사상과 왕권을 표현하는 호국의 상징물이기에 반드시 복원되어야 한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배 단장은 "복원하는데 20년 정도 걸릴 것으로 보이며 황룡사 전각과 주변의 전시장과 방리(方里) 복원까지 한다면 3500억원이 넘는 예산이 필요하고 비용은 국가가 주도하여 정부예산을 단계적으로 투입하

황룡사복원 국제학술대회

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이상해 성균관대학교 건축학과 교수도 '고대건축 복원의 의미와 방법 : 황룡사 복원을 중심으로'라는 제목의 논문에서 "황룡사가 왜 복원되어야 하는지에 관한 복원 원칙과 지침이 있어야 한다"며 "이러한 관점에서 디지털 기술을 응용한 황룡사 복원이 하나의 방안이며 디지털 복원을 통해 역사속의 황룡사와 경주를 보여줌으로써 관광객들이 경주에 하룻밤 묵고 가게 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주제 토론에 나선 통도사 성보박물관장 범하 스님은 "복원을 해야 한다는 당위성에는 동의하나 아직까지 9층 목탑과 장유존상 등 신앙의 대상물들에 대한 고증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건물만 짓는 것은 반대한다"며 "특히 관광자원화 되기보다는 황룡사 건립 당시의 불교적 정신을 이어받아 신앙의 공간으로 복원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해 눈길을 끌었다.

이번 학술대회는 유적 복원의 의의, 국내외 유적 복원에 따른 활용 사례, 황룡사 복원의 타당성 검토, 그에 따른 제반문제 검토 등 4개 분야로 나뉘어져 진행됐으며 국내외 전문가 30여명이 동참해 주제발표와 토론을 가졌다.

경주=김두식 기자



봄죽 시화(詩畵)

눈을 뜨고 눈을 감아도
허허당(휴유암 임주)

눈을 뜨고 눈을 감아도
보이는 건 마찬가지, 마음이라 했다..!
보고보고 또 보아도
한없이 보고 싶은 마음, 사랑이라 했다..!
주고주고 또 주어도
한없이 주고 싶은 마음 자비라 했다..!
눈을 뜨고 눈을 감아도.
보고 또 보고 주고 또 주어도
한없이 일렁이는 마음.
부처님 마음
아,
이 마음 하나로.
세상 무엇 하나 두려울 게 없네.
세상 무엇 하나 힘들게 없네.
눈을 뜨고
눈을 감아도...

2550 부처님오신날

새 백년 신생의 아침, 동국대학교
그 도약을 지켜보아 주십시오

4 동국대학교 총장 홍기삼



우리나라, 동국대학교

시대가 인재를 원할 때 동국이 있었습니다.
시대가 새 인재를 원하므로 동국이 있습니다.
이제, 동국의 젊은 '두드림'이 세상을 새롭게 열 것입니다.

우리 대학이 자랑하는 것은 백년의 전통, 백년의 역사가 아닙니다. 이 나라를 몇 단계 업그레이드시킨 수십만의 동문만이 아닙니다. 시인 한용운, 서정주, 조지훈, 산악인 박영석, 영화배우 최민식, 전지현, 농구선수 김승현... 이런 사람들만도 아닙니다. 우리가 참으로 자랑하고 싶은 것은 아름다운 5월 지금 우리 대학에 다니고 있는 학생들의 가슴속에 숨겨져 있는 열정입니다. 그들이 꿈꾸며 자유롭게 상상하고 그 어떤 도전도 두려워하지 않는 미래형 인재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대학의 역량을 집중할 것입니다. 결국, 누구라도 우리 동국의 문을 나서면 세상에 따뜻한 사람이고 널리 이로움을 나누는, 멋진 삶의 주인공이 되리라 확신합니다.

홍기삼

